

지역민 49.4% “광주·무안공항 모두 존치해야”

광주 67.8% 존치 찬성…전남 서부권은 “무안 이전”

광주공항, 무안공항 존폐

광주·무안공항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민 절반 가량인 49.4%가 ‘광주공항·무안공항 둘 다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무안공항을 광주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6%였으며, 무응답은 16.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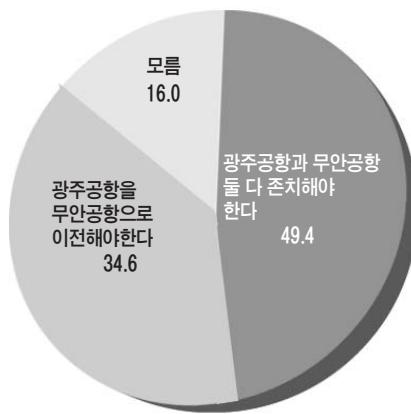
이 가운데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광주지역 응답자 중 67.8%는 광주·무안공항 두 곳 모두 존치해야 한다고 답

했고, 전남도민 47.99%는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한 응답자는 무안공항이 소재한 전남 서부권인 무안·신안군(66.7%)과 목포시(55.3%), 장흥·강진·영암군(63.6%), 함평·영광·장성군(50.0%), 담양·곡성·구례(40.0%)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지역 중에서도 전남 동부권인 광양시(50.0%)와 여수시(43.2%), 고흥·보성군(38.9%), 전남 중부권인 나주시·화순군(52.2%) 등에서는 ‘두 공항 모두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단위 : %)



광주 52.3% 찬성…동구 41% “인위적 조정 반대”

구간 경계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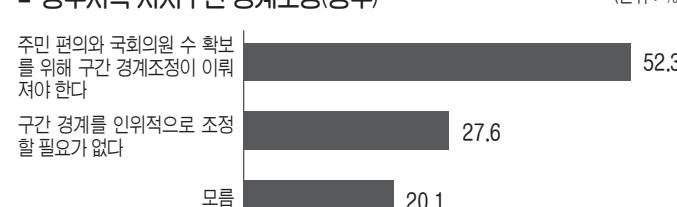
최근 광주시 현안으로 떠오른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뤄졌다.

광주·전남지역 응답자 500명 중 광주지역 응답자 21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2.3%가 구간 경계조정에 찬성했다. 27.6%는 인위적 구간경계 조정에 반대했고, 20.1%는 무응답이었다.

구간 경계조정 찬성은 20대(58.1%)와 30대(58.0%), 60대 이상(54.1%)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구를 비롯한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전반적으로

■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광주)



대부분 지역서 “나주·무안 모두 경유” 지지

호남고속철도 구간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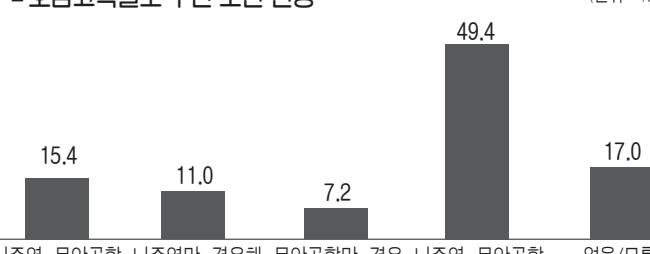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목포(임성리)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 선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4%는 ‘나주역과 무안공항 두 곳 모두를 경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주역·무안공항 경유 없이 목포로 바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15.4%, 나주역만 경유(11.0%), 무안공항만 경유(7.2%) 순이었다. 무응답은 17.0%였다.

‘나주역과 무안공항 두 곳 모두 경유’에 대한 응답자는 30대·40대·50대가 5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광주(29.4%)·남구(28.1%)·북구(37.7%) 등 광주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에서 높게 나타났다.

■ 호남고속철도 구간 노선 선정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립!!

스킬과 망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타사제품 A/S 및 관리 헌영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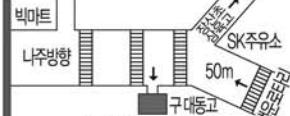
가격
파괴

50
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광주공항(위)과 무안공항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민 49.4%가 두 공항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신묘년 새해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무안공항 두 공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묵언을 찾길 기대해 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당장 중지해야” VS “계속 돼야” 찬반 팽팽

영산강 살리기 사업

반면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다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41.6%에 달했다. 오차범위(±4.4%) 내에서 찬반여론이 팽팽한 셈이다.

여론조사 대상자인 광주·전남지역민 500명 중 전남지역 응답자인 2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7%가 ‘(영산강 사업은) 정부의 4대 강 사업과 마찬가지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걸렸다.

목포시(50.0%)와 무안·신안군(66.7%), 해남·완도·진도군(37.5%)에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지만 나주시·화순군(43.5%), 담양·곡성·구례군(40.0%), 함평·영광·장성군(45.5%) 등에서는 사업 중지를 바라는 응답이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족 건강·경제적 풍요”

새해 소원

광주·전남 지역 민은 2011년 신묘년 새해에 ‘가족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꾹았고, 지역 경기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새해 가장 큰 소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0%가 ‘가족 건강’을 1순위로 꾹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풍요(17.4%), 화목한 가정(12.2%), 가족의 취업(6.4%), 내집 마련(4.2%), 자녀 진학(3.2%), 자녀결혼(2.2%) 등의 순이었다.

‘가족 건강’은 여성(59.6%)과 50대(56.0%)와 60대 이상(59.7%) 등 높은 연령에서 많은 응답이 나왔다.

‘경제적 풍요’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남성(20.8%)과 20대(27.9%)와 30대(21.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새해 지역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8%가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26.2%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어떻게 했나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차기 대선·총선 등에 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등을 통해 선정한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8일~30일까지 사흘간 일대일 전화면접 조사결과를 벌였다.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방법 등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 500명을 선정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했다.

전국 대상 조사는 표본 오차 ±1.8%에 응답률 18.0%였으며, 지역 현안 조사 표본 오차는 ±4.4%에 응답률 18.4%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대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나다순) 등 9개 신문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의 모든 것!! 이제 복돼지부동산에서 함께 하세요 돈 되는 경매·급매·A급상가

투/자/상/담

저희 회사는 20여년의 전문 경매정보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신문 광고에 나와있지 않는 큰돈이 되는 좋은 물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금액부터 ~끌고루 있으니 상담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및 법률 상담

- 이용 길 실장 010-5678-2536
- 이나경 010-8609-1600

운암동 호프

호프 & 꼬치구이 전문점

50㎡ 보1500만원 월90만

최신인테리어

상권 좋음!

매출 최상!

대로변가 테이블 7개

대형 테이블 있음

시비권 있음. 문의(조정가)

문의) 010-9005-2223



복돼지 부동산 ☎ 364-8887

• 각 지역 담당 •

- 서 구 (김팀장) 368-0808
- 북 구 (임팀장) 376-1613
- (지소장) 374-1612
- 남 구 (서팀장) 368-6677
- 광산구 (이팀장) 351-2281